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2306억원 투자

민간기업 846개 사업에 참여...경제 성장 모멘텀 창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및 스마트서울 CCTV 신규 구축

서울시가 경제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 846개에 총 2306억 원을 투자한다. 규모도 작년 대비 8.7%(2122억원) 증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846개 정보화 사업은 기관별 ▲서울시 332개 ▲25개 자치구 437개 ▲투자·출연기

관 77개 등이다.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시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 사업이 주로 민간기업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에 잠재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2928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는게 시의 판단이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말한다. 구체적인 정보화사업 주요 내용

은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및 스마트서울 CCTV 관제시스템 설치 ▲열린데이터광장 및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 ▲블록체인 기술 5개 행정분야 적용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민간의 경제가치 창출도 촉진할 수 있도록 열린광장데이터를 통해 기존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골목상권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인공지능(AD) 챗봇도 다양한 대화 시나리오를 추가로 개발·구축해 서비스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윤리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자격증명' '제로페이 연계 마일리지 통합' '서울시민 카드 통합인증'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시간제 노동제 권익보호' 등 5개 분야 공공서비스에 확대 적용한다.

시는 중소기업에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의 상세한 사업계획과 발주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당일 홈페이지(<http://info.seoul.go.kr>)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019년을 스마트서울의 원년으로 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서울시가 제작한 웹드라마 '풍경' 촬영현장 스틸컷.

서울시 제작 웹드라마 '풍경' 오늘 첫 선

서울시가 제작한 웹 드라마 '풍경(風景)'이 오는 18일 낮 12시에 처음 공개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울시 '서울스토리 드라마대본 공모전' 당선작인 풍경(風景)은 서울을 소재로 하는 웹드라마다.

'네이버TV'와 '월드와이드' 동영샹 플랫폼 '라쿠텐비키'에서 동시에 송출된다. 드라마는 첫 공개를

마음, 서울로7017, 남산, 인사동, 통인시장, 서울광장 등 서울의 주요 명소들이 나온다.

시는 또 차세대 한류스타 진영'과 인기 아이돌 AOA '민아' 등의 출연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몽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류 게스트하우스가 주요 무대인 '풍경' 드라마를 통해 서울의

낮 12시 네이버TV·라쿠텐비키 동시 첫 방송

한옥마을·인사동·남산 등 관광지 배경 담아

시작으로 매일 정오에 1화씩 방영될 예정이다.

'풍경(風景)'은 피앙돼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천재 소설가 다니엘이 18년 만에 서울로 돌아와 자신을 피양한 가족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드라마 배경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조계사 템플스테이, 북촌 한옥

강성과 따뜻한 이야기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것"이라며 "특히 한류 아이돌스타의 출연과 월드와이드 동영상 플랫폼 라쿠텐비키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되는 만큼 글로벌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해외에 널리 알리며 서울 방문으로 이어질 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스



대한민국의 희망찬 100년 기원합니다. 현지엘리트가 17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년 등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엘리트 50주년 나라사랑캠프'를 진행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어린이대표들이 손도장 태극기를 만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주요도로변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

토지구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의도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된 후 53년 만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관지구는 시내 전역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336곳에 21.36km(시가지 면적의 5.75%) 규모로 지정돼 있다.

그간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창고는 설치할 수 없었다.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별도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미관지구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그 결과 미관지구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의 한 사례로 취급돼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아예 폐지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전체면적의 82.3%)이다. 나머지 23곳(역사문화 12곳, 조망가로 11곳)은 '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필요

한 지구)'로 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곳(3.78km)은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으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곳(0.83km) ▲시가지경관지구 1곳(0.16km)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곳(2.79km)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시는 밝혔다.

또 증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

구(6층 이하)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증수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을 18일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의견을 듣는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께 미관지구를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적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발전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의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생산법 가르쳐준다

다음달 12일까지 6회 걸쳐

서울시는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농한기를 활용해 채소, 화훼, 과수, 식량작물 등 4개 분야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에서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올해부터 모든 농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를 비롯해 비농사, 화훼, 채소, 과수 재배 기술 등 영농설계를 위한 분야별 실용기술을 배울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27회에 걸

쳐 모두 1350명을 가르칠 계획이다.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다음달부터 개설된다.

2019년 농업인실용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2-6399-9868~7)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2019년 1월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PLS)제도를 알리고 영농설계에 도움이 되는 품목별 실용기술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